

앤서니 J. 토마시노(Anthony J. Tomasino)

박사, 십계명,

세션 3: 계명 2 : 이미지 없음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차시, 2계명: 이미지는 없습니다.

이제 2계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면에서는 이 계명은 꽤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교회사에서 이 계명은 십계명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계명입니다.

이유 중 하나는 문구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첫 번째 계명 b인가요? 그리고 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 즉 다른 신들, 심지어 조각한 형상을 포함해서라도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의 연장선인가요, 아니면 우상도 섬기지 말라는 별도의 계명인가요? 유대교,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은 이교 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형상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가톨릭과 루터교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1b, 즉 첫 번째 계명의 후반부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온갖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형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 신들의 형상만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상(icon)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모든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십계명이 정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통성 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은 우리가 성상 파괴 논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논쟁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는데, 당시 교회는 성상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를 놓고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교회는 성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지만, 각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나름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들을 통해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여겨야 할지, 두 개의

계명으로 여겨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어만으로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이나 주님의 형상을 포함한다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 하거나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들에게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로, 사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는 우리가 이교 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교 신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형상이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 전통에서 이는 첫 번째 계명과는 별개의 계명으로 이해되었으며, 모든 종류의 조각된 형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사실, 유대 역사의 여러 시기에 이 계명은 어떤 종류의 재현 예술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슬람의 일부 종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슬람 종파에서는 같은 해석 때문에 어떤 형태의 예술 작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작은 것들을 '눈 우상'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흥미로운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구상 미술품이지만,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큰 의문입니다. 수메르 유적지 등에서 이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것들이 신을 나타낸다고 여겨졌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자를 대표한다고 믿습니다 . 그리고 성전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을 때, 그 자리에 이런 작은 우상들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 저는 그저 상상 만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설교단에 올라가서 신도들을 바라보니 거기에 골판지 인형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 흥미롭지 않을까요?

날 보지 마, 난 정말 여기 있어 . 하지만 그래, 그들은 신들의 지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 어쨌든,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논리가 있어.

신이 돌 우상에 존재할 수 있다면 , 숭배하는 사람도 돌 우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쨌든,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우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스포츠 영웅, 가수, 정치인 등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이 단어의 유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상'은 어떤 종류의 신의 형상을 지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단순히 유명인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 계명이 꽤 간단해 보입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단순히 신이나 이 경우에는 우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우상이 단지 유명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돌과 바위 조각을 가리킵니다. 고대 세계의 우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는 인물, 즉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건 바알 신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손에는 아마도 번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처럼 우리가 수형신(theriomorphic)이라고 부르는 동물의 형상을 가진 신들도 있죠.

우상은 상징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아텐 원반, 즉 태양 원반이 위에 있고, 그의 손이 아래로 뻗어 사람들에게 온갖 놀라운 축복을 내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는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신이 왕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신이라는 건 뿔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여기 두 개의 상징이 있는데, 태양과 별, 어쩌면 이슈타르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상징이 놓여 있습니다.

꽤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상일까요, 아니면 그냥 상징일까요? 아시다시피 기독교 교회에서는 삼각형이나 세 개의 원 같은 것들이 신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상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친 형태인 매서 붓(massabot)이 있습니다. 그냥 서 있는 돌, 일종의 기둥, 아니면 누군가가 세워서 신의 거처나 상징이라고 부르기로 한 바위일 뿐입니다. 신들을 다양한 형태로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의인화 된 형태도 있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수의 형상을 한 형태도 있고, 상징도 있고, 마지막으로 매서봇이 있습니다 .

신성한 나무나 신성한 숲. 흥미로운 주제인데, 마치 자기만의 우상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나무가 자라고 나면, 그 나무를 어떤 신의 표상이라고 지정하는 거죠 .

아세라 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 어떤 방식으로든 이 신성한 숲 과 관련이 있을지 에 대한 추측이 있었습니다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우상이 단순한 형상 이상의 존재이며, 우상이 상징하는 신의 영혼을 담고 있다고 믿었다는 매우 현실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와 선지자들에게는 우상숭배에 대한 풍자가 가끔 등장하는데, 우상을 만든 장인의 유명한 이미지 중 하나가 있는데, 장인이 나무의 일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절하며 "음, 나무의 일부를 가져다가 벽난로에 넣고 아, 따뜻해! 멋지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장인이 나무의 일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절하며 "오, 당신은 나의 신이시여!"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을 표현 하기 위해 매우 정교한 의식을 거쳐야 했고 , 어떤 의미에서는 신의 존재의 일부가 이미지 자체 안에 머물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강 정화'라는 의식이 있었고, 그다음 입을 벌리고, 다양한 제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딘가에 있는 신과 여기 어딘가에 앉아 있는 이 형상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성화 의식과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성화 의식에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사람의 조각상과 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명확히 구분했고, 이는 단순히 예술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식과 관련된 과정의 문제였습니다. 의식 전에는 조각상이었고, 의식이 거행된 후에는 사실상 신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어떤 종류든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전사들이 여러 곳에서 약탈한 우상들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엷힌 우상의 그림도 있습니다 . 하지만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각자 자신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 중에는 이 우상들을 빼앗아 신전이나 다른 곳에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민족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을 정복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우상은 너무나 흔해서,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유대인들에게 우상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사실, 유대인에 대한 초기 그리스어 묘사 중 하나는 그들을 무신론자들의 민족으로 묘사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없으면 당연히 신도 없습니다. 성경은 신의 형상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신에 대해 생각할 때, 아마도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매우 감각 지향적인 용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감에 얽매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 등을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시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긴 백발의 노인이나 사랑스럽게 생긴 예수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커다란 빗덩어리 같은 것을 상상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항상 어떤 종류의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도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뻗어 십계명을 쓰시며 모세에게 지나갈 때 등을 보이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남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이시며, 반석이십니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특정한 속성들을 구현하기 위해 고안된 이미지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하는 이미지가 두세 군데 등장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흔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흔한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입니다. 예언서와 다른 많은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종종 군주가 신하들과 관계를 맺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말라기서에는 "내가 왕이라면, 내 명예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모든 묘사를 통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새긴 형상이나 돌에 새겨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연구 분야가 되었는데, 우리가 성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온전한 질문입니다 .

그리고 이것은 아시리아 부조입니다 . 이 부조는 성상 (iconism) 이라는 주제를 다룬 책 표지에 사용됩니다 . 성상(iconism)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 바로 성상(icon)의 형상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상화란 단순히 이미지 가 없다는 뜻입니다 . 좀 불공평하죠. 이것도 이미지니까요. 하지만 이건 분명, 전형적인 신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왕좌에 앉아 있는 큼지막한 수염 난 남자가 아니잖아요.

머리 꼭대기에 뿔이 난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깃펜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서기관 신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상 숭배는 단순히 예배에서 형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중 일부는 신들의 상징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종종 후로 마즈다를 상징하기 위해 날개 달린 태양 원반이나 그와 비슷한 그림을 사용합니다 .

하지만 때로는 그 위에 어떤 인물의 모습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양방향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고대인 들은 상징적 표현을 표상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확실히 독특했습니다. 우상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있었지만, 대개 그들의 우상은 주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계명으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줄 때,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상을 주셨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구름 기둥 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그가 저 위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너무 오랫동안 떠나 계셨거든요 . 그래서 사람들이 아론 에게 와서
"우리에게 신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신, 우리를 이집트로 다시 인도할 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네, 그들은 이미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이념적
문제는 지속적이며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나 이교 신들만큼 강조되지는 않지만, 동시에 특히 후기
예언자들 중 일부에게는 분명히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30년 전, 제가
십계명을 처음 집필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조차 주님의 형상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우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형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듯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흥미로운 형상들을 발굴했는데, 분명히
신적인 형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상징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교 신들이 있는지는 우리 관점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발굴 작업에서 매우 시사적인 유물과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제2 성전 시대, 즉 기원후 515년 이후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

예루살렘이나 유다의 다른 도시들에서 발견된 우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크메트 우상, 베즈 우상.

베즈는 매우 인기 있는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산의 수호신이었고, 사실
난쟁이 같은 존재였죠. 이집트의 신이었지만, 베즈의 모습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호루스의 눈. 아마 메기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메기도 상아 조각품 중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것 역시 호루스 신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상징이었습니다.

안나, 어머니 여신. 다산을 상징하는 다양한 여신들의 조각상. 이것은
바알 세스 스카라베인데, 여기에는 동물과 그 등에 서 있는 신, 그리고
아마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풍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 풍뎡이 역시 영생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상징입니다. 풍뎡이에는 다양한 이집트 상징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시기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러한 관계를 단념시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과 이집트 왕들 사이에 이러한 얽힘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을 돕고, 특히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집트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희망은 영원 합니다 . 물론, 다른 왕국들과 관계를 맺는 한 가지 방법은 이웃의 신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이러한 상징들 중 상당수는 일종의 정치적 동맹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가장 불안한 이미지 중 하나는 히스기야 인장일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8세기이며, 히스기야 왕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의 생명의 상징인 앙크를 볼 수 있습니다. 날개 달린 태양 원반도 보입니다.

물론, 질문은 이 날개 달린 태양 원반이 누구를 상징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따르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사용되었던 인장들은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살레마이트 인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 인장에도 두 명의 숭배자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에서 온 것이고, 여기 아래에는 살레마이트 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텍스트가 있습니다 . 여기 두 사람이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달 원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단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교의 달의 신이 새겨진 히브리어 비문이 있는 이스라엘 인장입니다. 여기 또 다른 이스라엘 인장이 있는데, 기원전 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수 라고 부르는 , 일종의 보호의 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웃 신들의 형상을 숭배하는 이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묘사하는 데 참여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전혀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 문제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형상이 금지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사용하고, 그분과 관계를

맏도록 형상을 주셨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형상을 돌이나 진흙 조각, 또는 벽에 새기는 것이 그토록 나쁜 일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을 가져서는 안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교 신들의 우상뿐만이 아닙니다.

제 말은, 당연히 이교 신은 첫 번째 계명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 중 하나는 어떤 우상도, 어떤 돌에 새겨진 형상도 주님께 공의를 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땅에 거하시겠나이까?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겠나이까?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상 숭배의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든 이 바위에 거하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이 거대한 집조차도 당신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늘조차도 당신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근거로 보면, 신상을 만들어 신을 모시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처럼 들릴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지을 집이 어디냐? 내가 안식 할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지은 것이요, 또한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물리적 구조물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여기서 다시 거부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시야를 제한할 뿐입니다.

고양이는 상자 안에 들어가지만, 신은 상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은 그런 식으로 묶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을 상상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이미지들을 느슨하게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돌처럼 굳어지거나 벽에 그려지면, 그것들이 우리를 제한할 위험이 생깁니다. 몇 년 전, 예수님 그림을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긴 머리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굳건히 굳건히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미지들은 바로 그런 종류의 제약을 우리에게 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상들이 신에게 가하는 제약, 즉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상이 조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우상에 대해 가졌던 주요 비판 중 하나입니다. 즉, 우상에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우상이 제단에서 내려졌는데, 특히 특정 축제 때 그랬습니다.

그들은 도시로 끌려나갔습니다. 축제 중 하나에서 신들은 멋진 모의 전투를 벌였고, 신은 승리의 기쁨으로 자신의 신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깨진 우상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지 종종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네 신학이 완전히 뒤틀리겠지, 안 그래?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 이 가서 자신들이 만든 형상의 목구멍에 액체 같은 피 같은 걸 붓는데, 신은 그걸 뱉어내지 않아. 아, 신께서 내 선물을 받아주셨구나.

우상들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당신에게 항상 기뻐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상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조종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가장 유명한 우상 숭배 사건, 즉 금송아지 사건의 배후에 있는 중요한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신을 조종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집트로 다시 데려가려고 금송아지를 원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집트에서는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 중 하나인 하토르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세요, 여기 이집트의 황금 신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다시 돌아올 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보다 앞서 가는데, 이는 물론 그가 그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편견을 구현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입니다 . 아시다시피, 성경은 우상이 왜 잘못되었는지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언급하는 것 중 하나는 우상 숭배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 영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름답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들의 이미지를 보면, 그들은 뚱뚱하지도 않고, 대머리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품고 있는 이상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예술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묘사할 때 종종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즉 자신에 대한 이상화를 되돌아보는 놀라운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를 찾는 사람은 깊은 우물 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 그가 보는 것은 마치 자신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께 투영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인이신가요, 흑인이신가요? 아니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형상을 만들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신은 강할까요? 위대할까요? 예술적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그는? 여성일까요? 어쨌든,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 당신은 어떤 가치나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이미지로 신을 구현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토르를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토르는 바이킹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을 정신을 구현한 것 같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가치관을 구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가치관을 구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돌에 새겨서는 안 됩니다.

자 , 이제 역사에 대해 다시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우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상의 몰락입니다.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개혁은 그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는 우상 숭배로 악명 높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과 27절에 따르면, 도둑이 들키면 부끄러움을 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 그들의 왕들, 관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나무에게 “네가 나의 아버지라” 하고, 돌에게 “네가 나를 낳았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즉 나무 형상과 돌 형상이 이스라엘에서 주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교 신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두 번째 계명이 이교도의 형상뿐 아니라 주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6장과 8장에 따르면, 우상 숭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숭배했던 온갖 가증스러운 형상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원전 515년 이후 성전이 재건된 후, 두 번째 성전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이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170년경 헬레니즘 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유다에서 우상 숭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소위 ‘황폐의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가 마카비서에 나오는 그 사건에 대해 얼마나 끔찍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우상이나 형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2성전 시대에 유대교에 일어난 변화를 봅니다. 예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이 생겨나, 구상 미술 전반이 거부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노라는 미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티프였지만, 이 시기에는 인간 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묘사가 진행되는 동안, 로마인들이 성전 앞에 세우려던 독수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독수리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여러 수호 동물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했을 때 또 다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대왕은 성전을 건축할 때, 동물이나 사람을 묘사하는 것은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상화도 넣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몇백 년 후, 다시 재현 예술을 수용하면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4세기 회당에서 발견된 황도대 등의 모습을 묘사한 멋진 모자이크가 그 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도도 변화했습니다. 기하학적

무늬, 식물 모티프, 그리고 다시 메노라와 다윗의 별은 예술에 흔히 사용되는 상징이 되었지만, 인물이나 동물의 이미지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두 번째 계명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계명은 신이나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형상도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짐승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동물의 형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이 시기에 그들은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 조금, 말하자면, 지나치게 꼼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형상, 성상 문제, 그리고 예배에서 형상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언급했지만, 분명히 이교 신들의 형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도 바로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네. 로마서에서 그들은 지혜롭다고 주장했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멸성인 인간,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한 로마 신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서기 3세기경부터 성상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성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상 사용을 비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두드러진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 성상 파괴 논쟁, 혹은 성상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논쟁은 동방 정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몇 가지 다른 사건들을 겪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성상 파괴 는 서기 726년에서 787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성상 파괴는 814년에서 842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무슬림들은 성상 자체를 거부합니다.

는 성상 사용에 강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상 파괴주의는 기독교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결국 우상과의 전쟁인 성상 파괴주의가 배척당하고 정교회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성상 파괴주의자들의 정신과 주장은 이후 개신교에 의해 부활하여 그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우상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형상과 실제 사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집착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형상을 만들어 주시도록 허락하는 대신, 하나님을 형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다양한 전통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성상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들 중 몇몇도 성상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들이 제2계명을 어긴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2계명의 이면에 있는 원칙, 즉 하나님은 너무 커서 견고한 형태나 그런 것에 담을 수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저는 그 원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에 대한 시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그러니 신의 이미지를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문제는 물론, 그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해에 제약을 받고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미지들이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들이 진짜 주님을 대신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한 가지 형상을 허용하고, 실제로는 한 가지 형상만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물론 인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주장의 의미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몇 분 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 오히려 성경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단언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를 확증하십니다 .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 물론 그는 다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인성을 과소평가하고 “우리는 신성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의 뿌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성과 신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이단으로 배척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신성이시며, 인간적이시며, 신성이십니다. 그분의 온전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몸소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분은 여전히 현존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형상 앞에 제물을 붓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줌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잘 섬깁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선반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길 건너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이웃, 사업가, 고아, 웨이트리스 등의 얼굴을 지닌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존중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 곧 예배의 영과 봉사의 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그림, 묘사, 이미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헌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이웃에게서 그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와 그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3, 계명 2: 이미지 없음입니다.